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㉔ - 조득남 장군정려

병자호란 결사 抗爭하다 戰死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소재지 : 가산면 마산리583-3
·지정년월일 : '2006. 4. 5
·관리단체/관리유무자 : 조길행

조득남 장군은 1636년 인조 때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입, 병자호란을 일으키자 왕을 호종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이시백 장군 휘하에서 북문을 지키며 결사 항쟁하면서 수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장렬히 전사하였다.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583-3에 위치한 조득남 장군정려.

·지정번호 : 포천시향토유적 제 44호
·명칭 : 조득남 장군 정려
·수량 및 면적 : 1동(정려 11.90㎡)
·소유자 : 한양조씨중흥회

교육에세이 30

방과후 학교 운영의 비전과 방향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장

2006학년도에 포천여자중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비영리 단체 교육 지원 협약』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주제로 전교직원, 학부모의 동참, 그리고 인근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과 대진대학교 대학생 멘토링(mentoring)을 비롯한 관내 비영리 법인(단체)과의 협약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은 물론 만족도에서도 성공적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에서도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그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을 비롯해서 각 시·도 교육청 별로 활발히 운영되었는데, 그 운영 방안은 물론 방과후학교의 배경이나 개념, 그리고 그 운영 방향 등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하다.

2005년 이후 시범학교 운영의 도입으로 '방과후 학교'는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인 교육체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한 현실적 대안으로 학교장 중심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중심, 현직교원 중심, 단위학교의 학생 및 시설 위주의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최근의 '방과후 학교'란 대학, 비영리단체에까지 운영주체가 확대되었으며, 전문가,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화되고, 타교학생, 지역사회 주민에게까지 확대되며, 인근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권장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6).

세익스피어 에세이

“진정한 참회는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



박 종 근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요즘 정치권에서는 참회론이 한창이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3년 만에 분당 국면을 맞았다. 분당의 연유는 실정을 거듭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수년간 벌어진 보선에서 단 한번도 야당인 한나라당을 이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자신들에게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렇지만 부동산정책이니, 양극화현상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 노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여당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정책책임자들의 도의적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한국 정치인들은 정당차원이건 개인차원이건 국민들에 대한 잘못을 무한대로 지겠다는 공심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열린우리당이 창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차기 정권에서 야당이 되겠다는 각오로 투명하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분당이든 해체이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런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던가. 재벌에 대한 일방적 지원하에 기업들은 재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투자보다는 부동산을 사들여서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았던가. 물론 현 정권이 이 상황을 과거로만 돌리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과거의 정책적 실수와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진솔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그들의 참회를 바탕으로 다시 신임을 주고, 정치에 대한 애정을 되돌려 줄 것이다.

아버지의 원수와 침대에 꿇기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햄릿에게는 엄청난 고문이다. 햄릿은 왕비의 방에서 엿듣고 있는 간신 플로리우스를 왕 클라우디우스로 잘못 알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만다. 그리고 그는 왕비를 다그치며 그녀가 저지른 부정의 죄를 추궁한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드리며 “아 햄릿, 그만해 뒤라. 네 말을 들으니 자연히 이 마음속이 들여다보이는구나. 마음속의 시커먼 이 오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거야.”라고 자탄한다. 일종의 진솔한 참회이다.

47번 국도 4차선 인근 도로옆

최적의 입지공간 공장임대

전여 15동



제조업 · 첫공장 · 금속공장 등에 최적

보증금 : 1500만원
월 임대료 : 180만원

공장등록필, 한동에 동력 30kw, 넓은 주차공간 보유



☎ 031) 531-0012 H.P 011-267-5498 (내촌면 음현리 소재) 박종하